

세니에의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 이상과 좌절

이 산 호
(중앙대학교)

차 례

- | | |
|-------------------|------------------|
| I. 서론 | IV. 이상의 좌절과 현실도피 |
| II.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 | V. 결론 |
| III. 정치적 이상과 현실참여 | |

I. 서론

18세기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앙드레 세니에(André Chénier)는 서른한 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포정치(La Terreur)’에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의 문학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는 ‘1789년 지지자 협회(la Société des amis de 1789)’라는 정치조직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어떤 문학적 유포에도 가담하지 않았기에 생전에 동시대인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은 시인은 아니었다. 그가 투옥되기 전에 발표한 몇 편의 시¹⁾도 동시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투옥된 후, 그의 미발표 작품들과 감옥에서 비밀리에 유출된 작품들이 유포되면서 서정 시인으로서 그의 재능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²⁾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1819년에 와서야 라투슈

1) 세니에는 투옥되기 전 *Le Serment du Jeu de Paume*와 *Les Suisses de Châteauneuf*을 발표했다.

2)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은 1802년에 자신이 세니에의 수사본을 이미 읽었다고 밝혔다. “Les écrits de ce jeune homme(Chénier), ses connaissances variées, son

(Latouche)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세니에는 인류의 진보를 찬양했으며, 과학의 발전이나 신대륙 발견을 노래했다. 위고, 라마르틴느, 비니 등 당시의 젊은 낭만주의자들은 세니에의 자유로운 표현, 자연에 대한 예찬, 근대적 서정에 열광했다.³⁾ 한편 세니에는 ‘진실’, ‘양식’, ‘이성’이라는 고전주의의 문학적 규범을 중시했으며, 그의 시적 이상은 고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와 모방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베르트랑(Bertrand)은 세니에를 부알로(Boileau)보다도 더한 고전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⁴⁾ “새로운 사상 위에 고대의 시를 만들자”⁵⁾라는 *l'Invention*의 저명한 시구가 잘 대변하듯이 그는 새로운 사상의 수용과 고전적인 전통의 계승이라는 18세기 후반의 문학정신을 충실하게 표출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세니에 연구에서 새로운 사상의 수용과 고대의 모방이라는 그의 문학적 성향은 수많은 연구가들이 다루어온 핵심적인 주제였다. 그 결과 현대적 사상과 헬레니즘이 그의 문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밝혀졌다.⁶⁾ 그렇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대혁명 전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던

courage, sa noble proposition à M. de Malesherbes, ses malheurs et sa mort, tout sert à répandre le plus vif intérêt sur sa mémoire.” *Le Génie du Christianism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p.1153.

3) 위고는 라마르틴느가 “낭만주의자들 사이의 고전주의자”라면 세니에는 “고전주의자들 사이의 낭만주의자”라고 했다. “Le premier (Chénier) est romantique parmi les classiques, le second (Lamartine) est classique parmi les romantiques.” Glachant, *André Chénier critique et critiqué*, Lemerre, 1902, pp.285-286.

4) “...en tout ce qui touche à l'imitation des anciens – l'idéal classique s'est encore rétréci et le poème de *l'Invention* marque un véritable recul par rapport à *l'Art poétique*.” Bertrand, *La fin du Classicisme et le retour à l'Antique*, Fayard, 1946, p.245.

5) “Sur des pensées nouveaux faisons des vers antiques” Chénier, *l'Invention*, in *Oeuvres d'André Chénier*, t. I, Paris, A la cité des Livres, 1927(이하 *Oeuvres* t. I, II, III으로 칭함) t. I, p. 151.

6) 세니에의 헬레니즘은 Bertrand의 *La fin du classicisme et le retour à l'antique*와 Kramer의 *André Chénier et la poésie parnassienne*을, 현대 사상은 Gausseron의 *André Chénier et le drame de la pensée moderne*을 참조하시오.

프랑스 사회에서 시인은 결코 사회와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 대혁명 이후 그는 열정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인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창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이상은 곧 무참하게 짓밟혔고, 그는 큰 좌절을 경험했다. 그의 문학은 이러한 그의 이상과 좌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세니에의 이상과 좌절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과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세니에의 정치적 이상과 좌절을 통해서 그의 문학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II.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

알프스의 매력을 전파한 루소의 *La Nouvelle Héloïse* 이후로 프랑스 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곳(ailleurs)’에 대한 열정이 고조되어 있었다. 독자들은 이국풍경을 전하는 문학작품이나 여행담에 열광했고, 작가들은 이국탐방을 자신들의 지식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했었다.⁷⁾ 그리하여 자아 승배가 길러낸 고백적 이야기들만큼이나 이국취향을 고취(鼓吹)시키는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세니에 역시 당시의 유행을 좇아 스위스를 여행하며 자연의 자유로운 대기를 만끽했다. 그리고 파리에 돌아와 몇 편의 목가를 완성했다. 그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 프랑스를 찬양했다.

“France, ô belle contrée, ô terre généreuse,
Que les Dieux complaisants formaient pour être heureuse,
Tu ne sens point du nord les glaçantes horreurs;
Le midi de ses feux t'épague les fureurs.
오 아름다운 나라, 기름진 땅 프랑스여

7) Pierre Moreau, *La conversion de Chateaubriand*, Félix, 1933, p. 242.

관대한 신들이 행복하기 위해 만든 곳
그대는 북방의 살을 예는 참혹함도 모르고
남쪽 불길의 격렬함도 비켜간다네.”⁸⁾

그러나 현실은 세니에에게 지독한 실망만을 안겨주었다.⁹⁾ 그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은 *La Liberté*에 잘 나타난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현실과 동시대인들의 처지를 신랄하게 고발한다. 이 시는 염소지기와 양치기가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시이다. 두 목동은 황량하며, “돌투성이의 검고 더러운 격류”만이 흐르고 있는 곳에서 우연히 조우한다. 곡물과 농업의 여신 케레스(Cérès)마저도 저주한 이 땅은 꽃도, 과실도, 잎이 우거진 나무도 없는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된 곳이다.

LE CHEVRIER

Mais Cérès a maudit cette terre âpre et dure,
Un noir torrent pierreux y roule une onde impure...
Point de fleurs, point de fruits. Nul ombrage fertile
N'y donne au rossignol un balsamique asile...

염소지기

그러나 케레스는 거칠고 딱딱한 이 땅을 저주했다네.
돌투성이의 검은 격류가 더러운 물결로 흐른다네...
꽃도 없고, 과실도 없다네. 잎이 우거진 어떤 나무그늘도
피꼬리에게 향기로운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네.¹⁰⁾

8) *Hymne à la Justice*, Oeuvres, t. II, p.203.

9) “...tant d'hommes enfin,
A l'insu de nos lois, à l'insu du vulgaire
Foudroyés sous les coups d'un pouvoir arbitraire,
De cris non entendus, de funébres songlots,
Ne feraient point gémir les voûtes des cachots.” - *Ibid*, p.206.

10) *La Liberté*, Oeuvres, t. I, p. 29.

거칠고 딱딱한 하며, “검은 격류”만이 흐르는 저주 받은 이 땅은 그 누구에게도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모지이다. 이 공간이 표출하고 있는 어둠과 불모라는 정서는 세니에가 인식한 프랑스 사회의 이미지와 닮아있다. 그를 절망시킨 현실이 이 시에서 공간의 불모성으로 표상된 것이다. 양치기는 이 불모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굶주린 양떼에게 풀을 먹이자는 염소지기의 간곡한 권유를 양치기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자신은 양떼의 주인이 아니며, 단지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도, 양떼를 키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토로한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채로 시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시인의 고통스런 한탄이 아닐 수 없다.

LE CHEVRIER

Comment as-tu donc pu d'herbes accoutumées
Nourrir dans ce désert tes brebis affamées?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일반 풀들로
이 사막에서 그대의 굶주린 양들을 키울 수 있겠는가?

LE BERGER

Que m'importe? est-ce à moi qu'appartient ce troupeau?
Je suis esclave.
무슨 상관인가? 이 양떼가 내 것인가?
나는 노예라네.¹¹⁾

염소지기는 양치기에게 적들을 쫓는 데 필요하다며 자신의 피리를 건네며 이 피리가 새들의 노래와 닮은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고 일러준다. 그러나 양치기는 피리를 거부한다. 자신은 올빼미나 흰꼬리수리와 같은 암흑의 새들이 부르는 음울한 노래 소리를 더 좋아한다고 했다. 꽃도, 이

11) *Ibid.*, p. 30.

슬도, 피꼬리의 부드러운 가락도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위안이 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어루만져주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그는 불모의 공간과 암흑의 새들이 표출하는 어둠과 음울이라는 정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내적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LE BERGER

Je hais tous vos plaisirs: les fleurs et la rosée,
Et de vos rossignols les soupires carressants.
Rien ne me plaît à mon coeur, rien ne flatte mes sens.
Je suis esclave...
Mon sort est de servir, il faut qu'il s'accomplisse.

양치기

나는 그대의 기쁨을 증오한다네. 꽃들도, 이슬도, 그대의 피꼬리의 가락도.
아무 것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으며, 아무 것도 내 감정을 어루만지지 못한다네.
나는 노예라네...
내 운명은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네. 그것을 완수해야만 한다네.¹²⁾

염소지기는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은 “불공정한 법”에 복종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¹³⁾ 그는 자유의 여신을 ‘덕의 어머니’, ‘조국의 어머니’라고 찬양하며, 여신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기원하지만¹⁴⁾ 양치기에게 대

12) *Ibid.*, pp. 30-31.

13) “Oui, l'esclave est dur; oui, tout mortel doit craindre
De servir, de plier sous une injuste loi,
De vivre pour autrui...” - *Ibid.*, p. 30.

14) “Protège-moi toujours, ô Liberté chérie,
O mère des vertus, mère de la patrie!” - *Ibid.*, p. 31.

지는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일 뿐이고, 자연은 온통 공허하고 끔찍할 뿐이다. 그는 신들에게서 재능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노예 상태로 구속하는 쇠사슬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토로한다.

LE BERGER

Moi, je n'ai pour les Dieux ni chaume ni guirlandes;
Je les crains, car j'ai vu leur foudre et leurs éclaires;
Je ne les aime pas, ils m'ont donné des fers.

양치기

나는 신들에게 바칠 초가도 꽃장식도 없다네.
나는 그들을 두려워한다네, 왜냐하면 그들의 벼락과 천둥을 보
았기 때문이네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들은 나에게 쇠사슬을 주었
다네.¹⁵⁾

자유를 상실한 노예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인식한 세니에는 양치기의 신세를 통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드러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사랑도, 시도 더 이상 시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는 아무 것도 아니며,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¹⁶⁾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시인의 소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15) *Ibid.*, p.33.

16) “La poésie ne peut plus rien, n'est plus rien, quand les hommes ne sont pas libres. C'est une âpre et profonde revendication qui monte d'une parole poétique qui refuse désormais de se séparer de son temps.” Raymond, *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Albin Michel, 1989, p. 57.

III. 정치적 이상과 현실참여

세니에는 친구 트뤼덴(Trudaine) 형제가 그를 영국 주재 프랑스대사였던 뤼제른(Luzerne)에게 소개했고, 그는 런던의 대사관에 일자리를 얻어 런던에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외교관의 직무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외교 업무에 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의 삶은 회색빛의 음습한 런던의 날씨처럼 암울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대혁명이 일어났다. 세니에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반혁명분자가 아니었다. 그는 붕괴되어가는 구체제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호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바스티유의 함락과 귀족과 성직자들의 특권 박탈 그리고 인권 선언에 기초한 국가의 개조를 지지했다. 그리고 라파이에트의 활약을 찬양했다.

세니에의 집안 분위기 역시 대혁명을 지지하고 있었다. 형 루이 소브르(Louis Sauveur)는 군대 내에서 혁명의 투사로 활약했으며, 동생 마리조셉(Marie-Joseph)은 연극과 시로 대혁명을 찬양했다. 세니에도 귀국하자마자 '1789년 지지자 협회'에 적극 가담하여 콩도르세(Condorcet), 다비드(David), 미라보(Mirabeau), 기요땡(Guillot) 등과 함께 이 조직의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였다. 자코뱅당(Le Club des Jacobins)의 온건 반대파들과 결합한 이 단체의 목적은 반혁명에 대항하여 혁명의 이념을 수호하고, 자유로운 헌법제정을 지지하는 것이었다.¹⁷⁾ 그는 *La République des Lettres*에서 시인의 정신과 재능으로 현실에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Donne-moi, d'un poète, esprit, gloire, génie,
 Tout, excepté pourtant l'enfantine manie...
 A toute heure est poète et n'est rien que poète.

17) “Le Groups qui réunissait les dissidents modérés du Club des Jacobins souhaitant contribuer au progrès de l'art social et se voulait attachée aux principes d'une constitution libre.” *Ibid*, P.81.

시인의 정신이여, 영광이여, 정수여,
모든 것을 내게 다오, 유치한 조광증은 제외하고...
언제나 시인이고 시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¹⁸⁾

세니에는 1790년 8월 28일 *le Journal de la Société de 1789*에 대혁명의 취지와 국가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글 *Avis aux français sur leurs véritables ennemis*를 발표했다. 이 글은 소책자로도 출판되었고,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널리 읽혀졌다. 그는 이 글에서 대혁명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혁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Lorsqu'une grande nation, après avoir vieilli dans l'erreur et dans l'insouciance, lasse enfin de malheurs et d'oppression, se réveille de cette longue léthargie, et, par une insurrection juste et légitime, rentre dans tous ses droits et renverse l'ordre de choses qui les violait tous, elle ne peut en un instant se trouver établie et calme dans le nouvel état qui doit succéder à l'ancien.

하나의 큰 나라가 과오와 무심함으로 노쇠해지고, 불행과 탄압에 지친 이후에 이 긴 마비상태에서 깨어나고, 정의롭고 정당한 봉기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권리를 완전히 유린했던 질서를 무너뜨릴 때에, 이 국가는 과거의 정부를 계승하는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한 순간에 자리가 잡히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¹⁹⁾

세니에는 구체제를 “모든 권리를 유린한 불행한 탄압”이라고 규정했으며, 대혁명을 “잘못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혁명을 경험한 프랑스는 권력의

18) *La République des Lettres*, Oeuvres, t. I, p.258

19) *Avis aux français sur leurs véritables ennemis*, Oeuvres, t. III, p.137.

균형을 잃고 강한 충격으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국민들은 여전히 혁명의 성공으로 인하여 뜨거운 감동에 젖어있었으며, 구체제가 파괴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새로운 체제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조용하지도 참을성이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곧바로 모든 권리를 되찾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였고, 모든 일에 참여하고, 감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세니에는 이러한 국민들이 여러 분야를 주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혁명에 참여한 국민들을 혁명 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경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실수나 과오가 구체제를 그리워하고 새로운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t si, au milieu de tout cela, la Nation s'éclaire et se façonne à de justes principes de liberté; si les représentants du peuple ne sont point interrompus dans l'ouvrage d'une constitution; et si toute la machine publique s'achemine vers un bon gouvernement, tous ces faibles inconvénients s'évanouissent bientôt d'eux-mêmes par la seule force des choses; et on ne doit point s'en alarmer.

만일 이런 모든 상황에서 국가가 정당한 자유주의로 자신의 길을 비추고, 자유주의에 익숙해진다면,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헌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공공 기관들이 좋은 정부를 향해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이 약한 장애물들은 스스로 곧 사라질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²⁰⁾

세니에는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수용과 자유로운 헌법제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간파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로 대중의 증오, 잘못된 정신과 사

20) *Ibid*, p.139.

상, 탄핵과 비난, 불법적인 폭동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가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들 사이에 알력을 조장하고, 음모를 획책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들을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법치주의,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등을 주창하며, 공정한 시민들에게 참된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²¹⁾

과거의 끝과 미래의 시작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틈을 좁혀보려는 세니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는 혼란과 공포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 갔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경계하던 공안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또한 계급은 사라졌으나 부유한 상류층과 가난을 면치 못하는 하류층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세니에는 1792년 *Le Journal de Paris*에 쓴 기사에서 자유주의를 중단시킨 원흉으로 자코뱅당원들을 지목하고, 그들이 자유와 국민의 이름으로 프랑스를 황폐화시킨다고 거칠게 공격했다. 이 기사는 혁명적 급진주의 노선을 따르던 동생과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²²⁾ 또한 자신을 공격한 브리소(Brissot)를 모사꾼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그가 애국자들의 이름을 피와 진흙으로 더럽게 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의 학살(les massacres des Septembre)'을 옹호하고, 푸셰(Fouché)와 함께 리옹의 탄압을 주도했던 콜로 데르봐(Collot d'Herbois)와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Quarante meurtriers, chéries de Robespierre,
Vont s'élever sur nos autels...
Que la Nuit de leurs noms embellisse ses voiles,

21) “s'il peut enhardir quelques citoyen honnêt et éclairé à se déclarer ouvertement en faveur de l'ordre public, de la vraie liberté, du vrai patriotisme, contre la fausse liberté... J'espère, je l'avourerai, que mon ouvrage pourra produire cet effet.” *Ibid.* p.179

22) “Désormais, les deux frères pouvaient se ressentir comme 《frères ennemis》.” Raymond, *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Albin Michel, 1989, p.128.

Et que le nocher aux abois
 Invoque en leur Galère, ornement des étoiles,
 Les Suisses de Collot d'Herbois.
 로베스피에르가 애지중지하는 마흔 명의 살인마들이
 우리의 재단 위를 곧 오르리라...
 어둠의 신이 돛을 그들의 이름으로 장식하리라
 그리고 개 짖는 소리에 뱃사공은
 별들로 장식된 그들의 깃발선에 소환하리라
 콜로 데르부아의 스위스 경비병 녀석들을.”²³⁾

이를 계기로 세니에와 자코뱅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들에 의해서 그의 사형 선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792년 8월 12일 세니에가 기사를 실었던 *Le Journal de Paris*는 폐간되었고, 같은 날 밤 급진주의자들이 난입하여 신문사를 불태워버렸다. 그의 동료들은 탄압을 피해 숨거나 파리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무자비한 정치탄압이 시작되었다. *La Gazette de Paris*의 편집장은 처형되었고, ‘감찰 혁명위원회(Les Comités révolutionnaires de surveillance)’가 각 구역마다 설치되었다. 9월에는 파리 교도소에서 잔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지롱드당원들(Girondins)은 제거되었고, 마라(Marat)는 암살되었다. 세니에가 열정적으로 주창했던 자유와 인권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파리에선 독재와 폭력만이 횡행하고 있었다. 세니에는 반혁명분자로 몰렸으며, 그의 이름이 포함된 일종의 살생부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²⁴⁾

세니에는 간절히 프랑스를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를 떠나지 못하고, 1793년 9월부터 베르사이유의 웅색한 거처에서 고독한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문학으로 다시 돌아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23) *Hymne aux Suisses de Chateaufort*, Oeuvres, t. II, p.209.

24) “Commencent à circuler des «listes de proscription» où figure son nom.” Raymond, *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Albin Michel, 1989, p. 135.

장편 서사시 *Hermès*와 *L'Amérique*를 완성하려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끌루아르(Clouard)가 지적했듯이 그의 시적 영감은 이미 고갈되었고²⁵⁾ 전통적으로 새로운 세상 혹은 공동체 탄생을 알리고 찬양하는 서사시를 쓰기에 그의 좌절감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IV. 이상의 좌절과 현실도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이국취향에는 다른 곳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만큼이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작가들은 경쟁적으로 현실도피를 위한 안식처를 이국에서 찾았고, 독자들에게도 이국은 곤궁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국취향의 사회학적 근거를 이상의 좌절과 이에 따른 현실도피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니에의 이국취향 역시 정치적 이상의 좌절에 따른 현실도피적인 경향이 강하다. 자유를 갈망하던 시인의 좌절과 극도의 상실감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 갔다. 그의 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죽음의 이미지는 극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Le Malade*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의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며, 죽음을 동경하기에 이른다.

“Ma mère, adieu. Je meurs; tu n'a plus de fils...
 Je ne parlerai pas. Adieu. Ce lit me blesse.
 Ce tapis qui me couvre accable ma faiblesse.
 Tout me pèse; et me lasse. Aide-moi. Je me meurs.
 안녕, 어머니. 나는 죽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 이 침대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25) “où plutôt il y travailla, pour ainsi dire, aux moments perdus de son inspiration.”
 Oeuvres, t. I, p. 161.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양탄자가 내 상처를 짓누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죽습니다.”²⁶⁾

이처럼 세니에는 혐오스러운 현실과의 고통스러운 결별을 준비했다. 죽음에 대한 동경은 전형적인 낭만주의의 주제로 그의 시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생트 뵈브가 그를 낭만주의자들의 ‘형’으로, ‘새로운 시의 계시자’로 칭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⁷⁾ 한편 세니에는 매일매일 고통을 인식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웃에 살던 르쿨트(Le Coulteux) 부인에게서 정열의 불씨를 발견한다. 파니(Fanny)라 불린 그녀에게서 시적 영감을 얻어 시인은 몇 편의 서정 단시를 썼다.

“Fanny, l'heureux mortel qui près de toi respire
Sait, à te voir parler et rougir et sourire,
De quels hôtes divins le ciel est habité.
La grâce, la candeur, la naïve innocence
Ont, depuis ton naissance
De tout ce qui peut plaire enrichi ta beauté.
파니여, 그대 곁에서 숨 쉬는 행복한 인간은
그대가 말하고 얼굴 붉히고 웃는 모습을 보았기에
하늘에 어떤 숭고한 주인이 산다는 것을 안다네.
우아함, 순박함, 순진한 순결함이
그대의 탄생 때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을 꾸몄으니.”²⁸⁾

세니에가 갈망하는 “하늘”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 곳의 “숭고한 거주

26) *Le Malade*, Oeuvres, t. I, p.44.

27) “Ce fut notamment Sainte-Beuve qui les habitua à l'idée que Chénier était un frère aîné et le révélateur d'une poésie nouvelle.” Kramer, *André Chénier et la poésie parnassienne*, Honoré Champion, 1925, p.14.

28) *A Fanny*, Oeuvres, t. II, p.160.

자들”은 누구였을까? 그가 꿈꾸던 안식처는 “형제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생기 없는 궁핍”이 없는 곳,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적 범죄”가 없는 곳, “국민의 피를 탐하는 고관들의 살육”이 없는 곳이 있으리라.²⁹⁾ 그는 *Hymne à la Justice*에서도 자신의 현실도피의 열망을 강렬하게 드러냈다.

“Non, je ne veux pas plus vivre en ce séjour servile;
J'irai, j'irai bien loin me chercher un asile,
Un asile à ma vie en son paisible cours...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비루한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가리라, 나는 멀리 가리라 안식처를 찾아서.
평온하게 흐르는 내 삶의 안식처에...”³⁰⁾

이처럼 세니에에게 현실은 비루한 공간에 불과 했다. 그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 끊임없이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갈망했다. 이렇듯 세니에 문학은 이상의 좌절과 이에 따른 현실도피라는 낭만적인 정서가 강하게 배어있다. 이미 출발 준비는 되었었다. 후일의 보들레르나 말라르메처럼 세니에도 매일 밤 돛을 올리고, 다른 세계를 향한 출발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세계로의 도피와 탈출의 열망은 그의 시에서 배, 돛, 돛대, 노, 바람, 물결 등의 이미지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Tout est-il prêt? partons. Oui, le mât est dressé;
Adieu donc. Sur les bancs le rameur est placé;

29) “Où d'un grand, au coeur dur, l'opulence homicide
Du sang d'un peuple entier ne sera point avide...
Où mes yeux éloignés des publiques misères
Ne verront plus partout les larmes de mes frères,
Et la pâle indigence à la mourante voix,
Et les crimes puissants qui font trembler la loi.” - *Hymne à la Justice*, Oeuvres, t. II, p.207.

30) *Ibid*, Oeuvres, t. II, p.207.

La voile ouverte aux vents s'enfle et s'agite et flotte...
 Prie, et la verse aux Dieux qui commandent aux flots.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가? 떠나자. 돛대는 세워졌다.
 그럼 안녕. 노 젓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다.
 펼쳐진 돛은 바람에 부풀어지고, 흔들리며 나부낀다.
 기도하라, 물결을 지배하는 신들에게 잔을 부어라.”³¹⁾

어디를 향한 출발이었을까? “신들이 물결을 지배하는” 곳, 그곳은 아마도 고대의 추억과 고전적 비전이 서려 있는 동방이었을 것이다. 18세기 중반 이후로 동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특히 폼페이와 헤라클라눔의 발굴은 사람들의 관심을 동방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세니에게 그곳은 단순히 유행의 장소만은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나 애뜻한 향수를 간직했던 곳이었다. 그는 1762년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갈라타(Galata)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겨우 두 살 반에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파리에서 그리스인으로 살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이후 언제나 그곳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삶의 요람이었다.

“Salut, Thrace, ma mère et la mère d'Orphée,
 Galata, que mes yeux désiraient dès longtemps.
 Car c'est là qu'une Grecque, en son jeune printemps...
 Me fit naître Français dans le sein de Byzance.
 안녕, 나의 어머니이며 오르페우스의 어머니인 트라키아여,
 내 두 눈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갈라타여.
 바로 그 곳에서 젊은 날에 한 그리스 여인이,
 비잔틴의 한복판에서 나를 프랑스인으로 태어나게 했었지.”³²⁾

31) *Dryas, Oeuvres*, t. I, p.89.

32) *Elégies Italiennes, Oeuvres*, t. II, p.88.

세니에가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헬레니즘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고대에 경도돼 있었던 프랑스 작가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고대 문학을 깊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고대의 서적들을 탐독했고, 호메로스를 찬양하는 목가 *l'Aveugle*을 쓰기도 했으며, 끊임없이 고대에서 시학과 이미지를 끌어왔었다.³³⁾ 그에게 고대는 일종의 종교였다. 그는 이곳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³⁴⁾ 그를 이교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³⁵⁾ '휴식', '풍요', '자유', '안식처', '어머니'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동방은 그에게 비루한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행복의 공간이었으며, 잃어버린 낙원이었다.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던 그의 내면 의식은 자주 동방의 이미지로 표출된다.

“Salut, terre où Saturne a trouvé le repos,
Mère de l'abondance et mère des héros...
Partons, la voile est prête, et Byzance m'appelle...
Ma chère liberté, mon unique héritage...
M'attends-tu sur ces bords, ma chère liberté?
안녕 사투르누스가 쉬고 있는 땅이여
풍요의 어머니이며 영웅들의 어머니여...
떠나자, 돛은 올랐다. 그리고 비잔틴이 나를 부른다.
나의 귀중한 자유여, 나의 유일한 유산인

33) “Ce fut encore comme Rosard un poète lyrique qui puisait ses images directement aux sources antiques.” Kramer, *André Chénier et la poésie parnassienne*, Honoré Champion, 1925, P. 16.

34) 세니에는 자신의 시학을 밝힌 *L'Invention*의 ‘첫 제의’(提議)에서 비르길리우스(Virgile)를 찬양하며 자신의 시적 이상을 분명하게 밝혔다.

“O fils du Mincius; je te salue, ô toi
Par qui le Dieu des arts fut roi du peuple roi!
Nul âge ne verra pâlir vos saints lauriers,
Car vos pas inventeurs ouvrirent les sentiers;
Et du temple des arts que la gloire environne
Vos mains ont élevé la première colonne.” - *L'Invention*, Oeuvres, t. I, p.145.

35) “Aussi ne peut-on s'étonner que «päien» Chénier... comme il aime à dire...” Raymond, *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p.69.

귀중한 자유여, 이 기슭에서 나를 기다려 주겠는가?”³⁶⁾

이상향을 쫓아 끊임없이 현실도피를 꿈꾸던 세니에는 1794년 3월 7일 저녁 파리에 살던 친구 파스토레(Pastoret)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집주인을 체포하기 위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생 나자르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7월 25일 처형되었다. 그가 처형당하고 이틀 후 로베스피에르는 실각했다. 후일 사또 브리앙은 동시대인들에게 세니에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Le Génie du Christianisme*에서 주저 없이 그를 고대 그리스의 시인 테오크리트스(Theocrite)에 비유하며, 대혁명이 프랑스의 뛰어난 서정 시인을 앗아갔다고 안타까워했다.³⁷⁾

V. 결론

세니에는 고대에 대한 이해와 향수를 바탕으로 고전주의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예찬하고, 근대적 서정을 노래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시인이었다. 그는 대혁명 옹호론자로 혁명의 이념에도 찬동했다. 대혁명 이후의 참혹한 사회와 동시대인들의 불행한 처지를 통찰하고 있었던 그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시인의 소명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정치 기자로 열정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그는 구체제를 ‘모든 권리를 유린한

36) *Elégies Italiennes, Oeuvres*, t. II, p.87.

37) “La Révolution nous a enlevé un homme qui promettait un rare talent dans l'épique; c'était M. André Chenier. Nous avons vu de lui un recueil d'idylles manuscrites où l'on trouve des choses dignes de Théocrite. Cela explique le mot de cet infortuné jeune homme sur l'échafaut; il disait en ce frappant le front: «Mourir! j'avais quelque chose là!» C'était la Muse qui lui révélait son talent au moment de la mort.” *Le Génie du Christianism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69, p. 703.

불행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혁명은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품들과 기고문들을 통하여 현실을 고발하고, 급진주의자들의 폭력과 독재를 비판했으며, 자유주의와 인권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사상을 설파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그는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하여 프랑스에 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니에의 이러한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포정치라는 폭력과 독재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자유주의와 인권은 유린되었다. 탄압과 살육만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는 쓰라린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인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이로부터 생겨난 낭만적인 정서는 고독, 고통, 죽음에 대한 동경, 현실 도피 등으로 나타난다. 그는 끊임없이 참담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었고, 안식처를 찾았다. 고대의 숨결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의 삶과 문학의 요람이었던 동방은 그에게 이상향이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들에서 동방이 표출하고 있는 정서는 언제나 자유와 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했던 그의 내적 심경과 일치한다. 세니에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추구하고, 안식처를 찾아 고대의 황금시대로의 복귀를 시도한 시인이다.

참고문헌

세니에의 작품

Chénier(A.), *Oeuvres d'André Chénier*, t. I, II, III, Paris, A la cité des Livres, 1927.

연구서

Arasse(D.), *La Guillotine et l'imaginaire de la Terreur*, Paris, Flammarion, 1987.

Aubarède(G. d'), *A. Chénier*, Paris, Hachette, 1970.

Bertrand(L.), *La fin du classicisme et le retour à l'antique*, Paris, Fayard, 1946.

Didier (B.), *Littérature française III 1778-1820*, Paris, Arthaud, 1976.

Canat,(R.), *L'Hellénisme des Romantiques*, Paris, P. Didier, 1951.

Dimoff(P.), *La vie et l'oeuvre d'André Chénier, jusqu'à la Révolution française, 1769-1790*, Paris, Droz, 1936.

Fabre(J.), *André Chénier*, Paris, Hatier-Boivin, 1955.

Farge(A.), *La vie fragile, Violence, pouvoirs et solidarités à Paris au XVIIIe siècle*, Paris, Hachette, 1986.

Gaiffe(F.), *Les Bucoliques d'André Chénier*, Paris, C.D.U., 1967.

Gausseron(J.), *André Chénier et le drame de la pensée moderne*, Paris, Scorpion, 1963.

Glachant(P.), *André Chénier critique et critiqué*, Paris, Lemerre, 1902

Goulemot(J.-M.), *Tyrannie et liberté dans l'oeuvre d'André Chénier*, Paris, Nizet, 1969.

Kramer(C.), *André Chénier et la poésie parnassienne*, Paris, Honoré Champion, 1925.

Madelénat(D.), *L'épopée*, Paris, P.U.F., 1986.

Raymond(J.), *La dernière nuit d'André Chénier*, Paris, Albin Michel, 1989.

Walter(G.), *A. Chénier, son milieu et son temps*, Paris, Robert Laffont, 1947.

<Résumée>

L'ideal politique et le découragement chez Chénier

LEE San Ho

Chénier n'était pas contre-révolutionnaire. Il adhérait avec ardeur à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il s'est engagé, avec une certaine vocation d'intellectuel et de poète, dans l'arène politique. Il est devenu auteur engagé et militant. Il dénonçait vivement la servitude humaine et la réalité servile dans ses oeuvres. Il attaquait le radicalisme révolutionnaire et les Jacobons dans ses brochures. Il voulait restaurer les ordres sociaux et politiques, et reconstruire la Nation. Malgré son combat contre le radicalisme, la société révolutionnaire est tombée en violence.

Devant le despotisme de la Terreur, Chénier a senti la flamme brûlante du désir de s'en aller loin pour consoler son inquiétude et sa douleur. Il désirait ardemment l'évasion hors de la réalité. Depuis la fin du XVIIIe siècle, on avait la curiosité de l'ailleurs et l'envie de dépasser l'horizon familial. C'était une époque où l'Orient commençait à exercer un charme profond sur les imaginations. La vie de Chénier est basée sur le monde oriental; né à Galata, il rêvait toujours de l'Orient, et il en gardait la nostalgie; il promenait les lecteurs dans une civilisation orientale de l'antiquité. L'Orient qui a été le berceau de sa vie, l'a fasciné. L'Orient était les lieux de son

bonheur idéal, et son paradis perdu. C'était là où Chénier pouvait se reposer sans être tourmenté. Il cultivait l'âge d'Or de l'antiquité où il n'y cessait de trouver une source d'inspiration poétique. Ce qui fait le caractère distinctif de Chénier, c'est non seulement l'écriture lyrique, mais aussi l'écriture politique et romantique.

주 제 어 : 세니에(Chénier), 프랑스 대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
현실참여(l'engagement),
현실도피(l'évasion hors de la réalité),
이국취향(l'exotisme)

투 고 일 : 2008. 6. 24.
심사완료일 : 2008. 7. 29.
개제확정일 : 2008. 8. 12.